

白鐵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양 영 길*

차 례

- I. 서론
- II.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 1. 사조사적 인식 방법
 - 2. 근대성 인식 방법
 - 3. 시대구분 방법
 - 4. 사조사적 인식 방법의 문제점
- III. 결론

I. 서론

한국문학사의 서술은 1922년 안확의 『조선문학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32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1939~41년 임화의 소위 『개설 신문학사』로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의 이러한 한국문학사의 서술은 한국 근대문학사 부분을 보면, 안확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제6장 최근의 문학'에서¹⁾,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는 '제6편 근대소설 일반'과 '제7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35. 甲午更張, 36. 新學과 新小說, 37. 新舊對立의 文藝, 38. 文化運動의 亂想, 39. 自覺論'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편 문예운동 후 사십 년간의 소설관²⁾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서술 시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가 한국 근대문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의 시작을 보이고 있으나 시작에 머물렀을 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의 흐름 위에 백철은 1947년과 1949년에 각각 『조선신문학사조사』상·하를 내 놓았다. 이 저서는 임화가 미완에 그쳤던 한국 근대문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을 그런대로 진전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백철은 1947·1949년 『조선신문학사조사』상·하에 이어, 1952년에 이를 합본한 개정판, 1955년에는 이의 증보판을 내어 놓았다. 그는 문학사 저서에서는 물론 그 외의 여러 논문 및 개론서에서 문학사와 그 서술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³⁾

이 글에서는 백철이 내세우고 있는 문학사 서술을 위한 인식방법과 『신문학사조사』(1955)⁴⁾를 중심으로 그가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조사적 인식 방법', '근대성 인식 방법', '시

2) '제6편 근대소설 일반'에서는 영정시대부터 갑오 이전까지의 소설을 '제7편 문예운동 후 사십 년 간의 소설관'에서는 갑오 이후 40년 간의 소설을 서술하고 있다.

3)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상·하, 1947·1949.

___, 『개정 신문학사조사』, 1952.

___, 『증보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5.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 1957.

백철, 「국문학사 서술방법론」, 사상계44, 1957.3.

___,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972.

___, 「한국문학사 서술방법상 문제점—서술방법 및 지향점」, 서강 제4호(서강대학교), 1973. 12.

___, 「한국문학사 서술의 요강」, 예술원논문집 13집, 1974.

___, 「신서 한국문학사예의 모험」, 『한국문학』52호, 1978.2.

___, 「한국문학사 연구 - 한국문학사와 원류적인 것」, 아카데미논총, 1978.6.

___, 『제4판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4) 1955년 증보판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1947·1949년 초판의 경우 오식이 많고 매우 거칠며, 1955년 증보판에 와서 다소 정리되고, 또 방법적 측면을 많이 보강하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구분 방법', '사조사적 인식 방법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1. 사조사적 인식 방법

백철은 사조사적 방법에 대하여 “먼저 무대를 설정하고 특징을 가진 몇 개의 사조장면에 구분하여 그 무대조건 위에서 작가와 작품을 연출하는 문학사”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조사적 방법의 의의는 “—作家나 —作品을 보는데 있어 그 자체만에 한한 해석으로선 그 성격이 애매한 경우에도 그것을 좀더 큰 시대사조의 무대 위에 내놓을 때에 그 작가와 작품은 무대의 각광을 받고 돌연 그 면모와 특징이 명료”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문학이 생성발달은 “대개는 작가나 작품이 고립해서 생겨나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세력을 타고 群團과 流派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문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사조를 주로 해서 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考案하는데 있어 유력한 방법론”이라고 『신문학사조사』를 시작하고 있다.⁵⁾

백철의 이러한 문학사 인식은 “한 민족의 문학사란 항상 명료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하고자 했다. 그리고 “무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계있는 사실로 바꿔 놓는 일”, “관계의 확인은 법칙에 선행하나 작가나 작품이나 조류나 시대의 성격을 신중히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⁶⁾이라 하여 사조사의 근간을 ‘관계법칙, 작가나 작품의 조류, 시대의

5)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5), 1~2쪽.

6) 백철, 『국문학사 서술방법론』, 324~325쪽.

성격'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그는 문학사가의 기본 임무는 “그저 한 시대의 개개의 작품에서 공통되는 본질적인 특징을 분석 판단한다든가 과거의 작품들과의 질서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현대와 그 혈맥이 상통하는 연관성 아래서 체계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나아가서는 현대문학에게 미래에의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그 사명은 비로소 끝난다.”⁷⁾고 하여 문학사 서술이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그는 부분적으로 비교문학적 방법을 원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세계문학사적인 태도를 명시하는 것은 비교문학적인 방법에 의해 문학사를 다루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어떤 한 지방, 한 민족의 문학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것을 동시에 또 하나의 다른 문학사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두 개 이상의 문학 사이에 어떤 일반성을 구명하는 문학사의 방법”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문학적 방법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우위에 놓고 인식하는 자율적·연속적인 인식이라기보다 임화의 이식문학과 같은 타율적·불연속적 인식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한국 근대문학사를 사조사로 보면서 그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근대사조 그 자체가 모다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지만 신문학도 일본신문학계를 거쳐 들어온 것인데, 이때 신문학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당시 일본 문단에는 벌써 근대적인 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된 시기인데 불구하고 신소설작가들은 신파소설과 『都新聞』 등의 軟派 가정소설을 취해서 모방했다는데 그 안이성과 무력성이 있었던 것이다.⁹⁾

근대사조의 흐름을 따라 조선신문학의 발전과정을 보아갈 때에 (...) 구라파에선 그 근대사조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5,6세기간을 통하여 成育된

7) 백철, 『한국문학사 서술방법상 문제점 - 서술방법 및 지향점』, 132쪽.

8) 백철, 『문학개론』(신구문화사, 1972), 395쪽.

9)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5), 15~16쪽.

사조인데 조선에선 불과 3,40년간에 그 사조를 惶惶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 짧은 기간 동안에 근대적인 모든 사조가 거의 전후해서 混流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사조가 들어와서 충분히 발육되는 시간을 기다려서 또 하나의 사조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조가 들어오고 혹은 그것이 대개는 일본문단의 현행되고 있는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서가 전도되어서 들어온 예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여기선 모든 사조가 일시에 혼류되어 일견 그 선후와 질서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¹⁰⁾

위의 두 서술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사조사 서술의 난맥상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인식의 근간에는 식민사관의 하나인 停滯性論과 임화의 이식문학론을 바탕으로 하는 타율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그는 이러한 한국 근대문학의 정체성을 문일평 등이 인식하는 '신라 이래 2천년의 불변한 귀족제도의 불모성', '아시아적인 불모성'을 내세우면서 "뒤떨어진 불모의 환경속에 모처럼 근대적인 것을 이식해도 그것이 순조롭게 싹터 발육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수척하고 왜소한 영양 부족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¹¹⁾고 하면서 우리 신문학이 불모성으로 말미암아 빈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백철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타율적·불연속적 인식으로 시대적 영향사가 아닌 지역적 영향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사관의 하나인 정체성, 사대성, 불모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퇴폐적인 경향에 대하여 "불란서의 퇴폐주의문학은 이땅의 퇴폐문학의 모범이 되었던 것"¹²⁾, "우울문학인 露西亞의 근대문학"¹³⁾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조선의 자연주의문학이 그 주조를 먼저 서구에서 수입했고 구체적으론 플로베르나 모팻상을 師事"¹⁴⁾했다. "동반자작가란 무

10) 위의 책, 16~17쪽.

11) 위의 책, 4~5쪽.

12) 위의 책, 125쪽.

13) 위의 책, 128~129쪽.

14) 위의 책, 214쪽.

엇이나 이것도 외국에서부터 온 것”¹⁵⁾ 등으로 이식문화적 인식의 뿌리가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35년을 전후해서 우리문단에는 일시 행동주의가 소개되고 휴면이즘이 논의된 일”이 있는데, “말할것도 없이 이것은 먼저 유럽에서 발단 성행되고 차츰 일본을 거쳐 우리 문단에까지도 그 여파가 미친셈”¹⁶⁾이라 하여 모든 사조나 문학적 현상들이 외국의 것을 이식했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토양이 이러한 이식문화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백철은 개항 이후 ‘신문학이 순조롭게 발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여 “개화운동의 기본이념인 자주독립대신에 이 나라는 민족적으로 거세를 당한 식민지의 환경”으로 전락한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그 출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건이 약했던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신문학사상 일제하 40년간은 암흑기의 시대”로 단정하고 있다.¹⁷⁾ 이는 개항 이후 분단기점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2. 근대성 인식 방법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제호 자체에서부터 ‘근대’를 의식하고 있다. ‘신문학’이란 용어 자체에 ‘근대’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성’에 대한 인식은 그 체계가 무르다고 할 수 있다. 또 그 기점 설정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점을 제시하지 않고 시대구분에서 각 시기의 의의를 ‘근대’를 중심으로 부연 강조함으로써 그 기점 설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영정조 시대’에 대하여 “이땅에 근대적인 신문화운동이 어느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은, 본격적으론 역시 1894년, 즉 갑오혁신 이후를 잡

15) 위의 책, 277쪽.

16) 위의 책, 314쪽.

17) 위의 책, 14~15쪽.

아아하겠지만 나는 우선 그 근대성을 그 전 18세기중엽, 즉 영정조의 시대에 올라가서 찾아보는 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¹⁸⁾라고 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성을 영정조 시대와 그 이후 시대인 갑오혁신 이후 시대를 연속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근대성에 대하여는 ‘루네이상스적인 기운, 「實事求是」의 풍이 왕성, 자기반성의 기운, 과학사상, 사학 지리학 등의 등장, 국민문학을 일으키는 기운, 신흥전진하는 시대적인 세력, 고전에 대한 정리 수집 편찬’¹⁹⁾ 등을 산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춘향전」 하나를 두고 봐도 이 영정조시대에는 문학상에 확실히 근대적인 요소”²⁰⁾가 싹트었다고 하여 영정조 시대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갑오혁신 이후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무리 뒤떨러졌다해도 결국 근대적인 신문화운동은 이땅에도 등장할 시대가 온 것”이다. “1884년과 1894년의 2차에 걸쳐 일어난 이른바 甲申 甲午의 두 개혁사건은 반도의 정치사의 신기원으로 될 뿐아니라 이 땅의 신문화사의 배경을 지었다.” “비교해보면 이 두 개혁사건은 소규모의 불란서혁명과 같은 것”²¹⁾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갑신 갑오 두 개혁사건도 정치적으로 획기한 성과를 견우지 못”했으나 “중요한 것은 이 갑오년간을 전후해서 광범하게 민간이 일어난 전국적인 혁신의 풍조”였다. “그것은 근대적인 것을 환영해 받아드리는 민중의 환성”이었다. 그리고 이 “근대적인 것은 당시 개항한 문호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것”²²⁾으로 서술함으로써 앞에서의 영정조 시대의 자율적 인식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대성을 ‘쇄국의 문이 열리는데, 봉건주의에 대한 선전이 포고, 동학란 등의 민중반란, 민간의 혁신의 풍조’²³⁾, 시민계급이 지방

18) 위의 책, 5쪽.

19) 위의 책, 5~9쪽.

20) 위의 책, 8쪽.

21) 위의 책, 11~12쪽.

22) 위의 책, 12쪽

할거, 봉건제 타파, 시민이란 신사회권의 경제적 유기관계, 민족주의의 생성'²⁴⁾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백철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근대 기점을 “신문학이 진실한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나타난 것은 1919년초라고 생각”했다. “좀더 정확하게는 1919년 2월 문예동인지 「창조」의 발간을 가지고 시작”²⁵⁾되었다고 그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근대적인 문학의 본의미를 몸에 지니고 등장”²⁶⁾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근대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신계급의 문학운동이 전시대문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기를 확하고 나선 조항은 어떤 것일까.

「창조」라는 순문예잡지를 통하여 이 문학운동이 시작된 것이 처음으로 순수한 문학운동으로 나타난 특징이었고, 다음은 前期의막연한 문학일반부분의 문학운동이 아니고 시와 소설의 분야를 명확히 분획해 놓고 나선 것이 근대문학의 구체성을 파악하여 일보전진한 곳이었다.²⁷⁾

창조파를 '신계급'으로 규정하고, '순수한 문학운동, 시와 소설의 분획' 등 문단적 현상에서 근대성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24년을 현대문학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1924, 5년경은 신문학사조사를 양분하는 하나의 분수령”이다. “이 시기에 와서 신문학사는 지금까지와는 별개의 사조를 받아들이려 하나의 주류를 일우었던 때문”²⁸⁾으로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3) 위의 책, 11~12쪽.

24) 위의 책, 50쪽.

25) 위의 책, 90쪽.

26) 위의 책, 92쪽.

27) 위의 책, 93쪽.

28) 위의 책, 232쪽.

근조이후를 일괄해서 현대문학으로 하는 것을 피하고 그것을 신문학사편이라 하는 대신에 그것을 발달된 시기와 그 내용의 차이에 준하여 전기 즉 신소설이후 1924년경의 자연주의 문학까지 근대문학편이라 하고 그 후기 즉 1924년경의 소위 신경향파 문학이후 해방 뒤 오늘날까지의 문학과정을 현대문학부라고 분칭하여 된 것이다.²⁹⁾

즉 1924년 기점으로 현대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문학사를 이원론적 입장에서 인식하던 태도에서 일원론적 입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학사 인식은 시대구분의 기점에 대한 의미 부여에 있어서 오직 '근대사조'를 중심으로 강조 부연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대성에 대한 인식 방법에 있어서도 문학 내적 측면과 문학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재해 있고 그 서술도 소박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 즉 하나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시대구분 방법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서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緒論 근대사조와 신소설 / 제1장 개화사조와 신소설 / 제2장 민족주의와 신문학의 초창기 / 제3장 문예사조의 혼류와 순문학운동 / 제4장 퇴폐적으로 문학이 병든 시대 / 제5장 魯漫主義 「화려한 시절」 / 제6장 신문학의 수준과 자연주의의 위치 / 제7장 主潮 밖에 선 계경향의 문학 / 제8장 신경향파 뒤 10년간 / 제9장 정세의 변천과 예술파의 신흥 / 제10장 암흑기와 문학지상의 시대

그런데 그 시대구분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사조사

29) 백철, 「국문학사 서술방법론」, 327쪽.

자체가 시대구분에서 본질적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이나 방법론은 제시되어야 한다. 백철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제시도 없이 사조의 흐름을 좇아 시대를 구분하고 명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각 장에서 그 기점에 대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905년에 (...) 「혈의누」의 간행을 갖고 신소설의 기원으로 보는 동시에 우리 신문학사의 첫 페이지에 기록할 구체적인 신문학 출발의 신호라고 생각한다.³⁰⁾ — ‘제1장 개화사조와 신소설’

제1기 신문학운동의 기원을 융희2년(1908) 10월 1일 「소년」지가 육당최남선 주재로 창간된 것에 두면 이땅의 신문학운동은 신소설문학기의 竝行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제1기의 신문학운동을 융희말년에서부터 1919년 3·1독립운동기를 전후한 약10년간을 잡아본다.³¹⁾ — ‘제2장 민족주의와 신문학의 초창기’

이땅에 있어서 신문학이 진실한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나타난 것은 1919년초라고 생각한다. (...) 좀더 정확하게는 1919년 2월 문예동인지 「창조」의 발간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었다.³²⁾ — ‘제3장 문예사조의 혼류와 순문학운동’

1919년 3·1독립운동은 근세의 우리 民族史上에 높이 솟은 하나의 기념탑이다. 이운동은 이땅의 근세정치운동에 있어 한 분수령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문학운동에 있어서도 창조파이후의 것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³³⁾ — ‘제4장 퇴폐적으로 문학이 병든 시대’

1924, 5년경은 신문학사조사를 양분하는 하나의 분수령이다. 이시기에 와서 신문학사는 지금까지와는 별개의 사조를 받아들이려 하나의 주류를 일으켰던 때문이다.³⁴⁾ — ‘제7장 主潮 밖에 선 제경향의 문학’

30) 백철, 『신문학사조사』, 22쪽.

31) 위의 책, 48쪽.

32) 위의 책, 90쪽.

33) 위의 책, 120쪽

신경향파가 오게된 것은 그배경에 1920년대부터 나타난 소위 사회운동의 반영이라 볼수도있다. (...) 그때 신경향파가 오게된 것은 밖의 원인보다도 직접 문학사적인 하나의 반동이었다고 볼것이다.³⁵⁾ — ‘제8장 신경향파 뒤 10년간’

1935년을 전후해서 우리문단에는 일시 행동주의가 소개되고 휴먼이즘이 논의된일이 있다. 이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안이고 전기한 암흑한 세계적인 정세와 대응해서 생겨난 지식인들의 태도를 의미한 것이다.³⁶⁾ — ‘제9장 정세의 변전과 예술파의 신흥’

1936년이후로 나오면서 우리문단이 배경한 시대적인 정세는 더한층 험악해가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익어가면서 「위기! 1936년!」이 선포되었던 것이 극동에서는 늦어서 1937년 7월 7일에 폭발된 일중군의 충돌, (...) 이것은 결국 제2차대전의 동양에서의 개막을 의미한 것이다.³⁷⁾ — ‘제10장 암흑기와 문학지상의 시대’

이러한 시대구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혈의누」의 간행, 『소년』지의 창간, 『창조』 창간, 신경향파의 등장 등 문학 내적인 기준에 의한 독자적인 방법에 의한 구분과 다른 하나는 '3·1독립운동, 암흑한 세계 정세, 제2차대전의 개막' 등 문학 외적인 기준에 의한 의존적인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구분은 애매한 절충에 빠지지 않고 문학 내적인 독자적인 방법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독자적인 방법은 시대 명명에 있어서도 문학 내적인 기준에 의해 명명하고 있다. 상위 구분만이 아닌 하위 구분까지 일관되게 본질 개념에 충실하여, 하나의 문학사상(文學史像)을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사조에 의한 구분으로 연속성의 측면에서 문학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관류

34) 위의 책, 232쪽.

35) 위의 책, 256쪽.

36) 위의 책, 314쪽.

37) 위의 책, 322쪽.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대 명명에 있어 지나치게 본질적 개념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서술의 통시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명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1장 개화사조와 신소설

1. 신소설의 등장 /2. 계몽문학으로서의 신소설 /3. 자주독립을 강조(신소설주제 기1) /4. 신교육사상의 선전(신소설주제 기2) /5. 인습의 비판과 신도덕관(신소설주제 기3) /6. 미신타파와 현실폭로(신소설주제 기4)

제2장 민족주의와 신문학의 초창기

1. 민족주의의 고조시대 /2. 신문학과 신문장 /3. 소년은 이 시대문학의 주인공 /4. 애국주의와 이상주의 /5. 신교육 과학사상의 계몽 /6. 외국문학의 소개와 신인의 등장

제3장 문예사조의 혼류와 순문학운동

1. 문예지와 순문학운동 /2. 순문학운동의 의의 /3. 「창조」파의 문장혁신운동 /4. 문예사조의 혼류와 김동인의 작품 /5. 자연사상의 유행과 그 영향 /6. 신시운동과 주요한의 작품

제4장 퇴폐적으로 문학이 병든 시대

1. 3·1독립운동과 그 영향 /2. 퇴폐적 경향의 등장 /3. 외래문학의 영향(기1) /4. 외래문학의 영향(기2) /5. 퇴폐문학의 중간윤리 /6. 「폐허」 중심으로 퇴폐적 경향의 만연 /7. 퇴폐주의와 그 뒤의 문학

제5장 魯漫主義 「화려한 시절」

1. 魯漫主義의 2대 경향 /2. 신문학상의 魯漫主義 /3. 「백조」파와 병적 魯漫精神 /4. 꿈과 魯漫主義 문학의 세계 /5. 영웅주의! 시대는 「백조」파의 것 /6. 미지의 왕국을 동경 /7. 감상주의의 과잉 /8. 신비와 상징과 유미주의 /9. 魯漫主義의 문장 /10. 魯漫主義 왕국의 붕괴

제6장 신문학의 수준과 자연주의의 위치

1. 신문학과 자연주의 작가의 공적 /2. 자연주의 이론적 근거 /3. 자연주의 문학과 염상섭의 작품 /4. 자연주의 문학과 현진건의 작품 /5. 자연주의

의 영향하의 제작가

제7장 主潮 밖에 선 제경향의 문학

제8장 신경향파 뒤 10년간

1. 신경향파와 그 문학 / 2. 프로문학의 시대 / 3. 민족주의 문학의 동태 / 4. 해외문학파의 등장

제9장 정세의 변전과 예술파의 신흥

1. 세계적으로 불안의 시대 / 2. 예술파의 득세

제10장 암흑기와 문학지상의 시대

1. 위기의 심화와 문학 동태 / 2. 歸田園의 문학 / 3. 인생파의 문학 / 4. 심리세태소설의 경향 / 5. 역사소설 통속소설 / 6. 여류문학의 수준 / 7. 20대의 작가와 그 경향 / 8. 兩문예지의 공적 / 9. 암흑 속의 문학

시대명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부터 제8장까지는 순수하게 문학 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를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9장 정세의 변전과 예술파의 신흥', '제10장 암흑기와 문학지상의 시대'를 보면 문학 외적인 내용과 문학 내적인 내용을 적절히 융합시키는 시대명명을 엿볼 수 있다.

하위 구분에서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명명은 문학 내적인 명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9장과 제10장에서는 문학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인 '세계적으로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심화와 문학 동태'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한 문학 내적인 기준에 의한 명명은 사회사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지나치게 이를 염두에 두면 문학사의 배경인 사회사를 외면하여 메마른 이원론에 빠질 우려를 낳게 만든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일원론적 인식에 대한 경계로 말미암은 경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는 사회사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특수사에 해당하므로 경직된 이원론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사조사적 인식 방법의 문제점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핀 ‘근대성’ 인식의 문제라든지, 그 기점 설정 문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그 체계가 완속되지 않은 무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우리 신문학은 그것이 출발 이후 지금까지 거의 외래적인 것에 대한 추종이요 참된 우리 고전에 대한 반동과 계승”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의식적으로 그 고전문학과 현대적 문학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적극화”³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현재 우리가 문화 예술적으로 구미적인 것의 기계적인 이식을 폐기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민족적인 문화 각개 전통에서 수립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긴급”³⁹⁾하다고 사조사를 쓰게 된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철의 사조사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변영로, 남궁벽, 한용운, 김소월, 김형원, 김동환 등에 대해서는 ‘주조 밖에선 제경향의 문학’으로 분류의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는가 하면, 여류문학에 대해서는 “소위 하나의 작가군으로서 여류문학이 일수준”까지 올라서야 서술 대상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⁰⁾ 특히 김동환에 대한 다음의 서술은 사조사로서의 한계를 잘 드러내는 일례라 할 것이다.

파인 김동환은 1924년 그의 처녀시집 「국경의 밤」을 갖고 우리 시단에 혜성과같이 등장한 하나의 괴한이었다. 그는 종래에 시단을 차지해온 귀족적인 또는 댄디-한 시인들과는 종류가 다른 지방종이었다. 백로의무리속에 훌

38) 위의 글, 315쪽.

39) 위와 같음.

40)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55), 344~345쪽.

연히 까마귀가 등장한 셈이다.”⁴¹⁾

백철은 1970년대에 여러 문학사, 특히 조연현의 문학사에서 보이는 서술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신문학 초기의 창가·신체시·신소설에 대하여 문학사적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1920년대 전후를 근대사조의 도입기로 보고 이를 근대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셋째, 비평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대문학의 내용이 빈곤하다는 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첫째에 대하여 “초기의 신시에 있어서도 가령 육당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체시의 대표작으로 요한의 「불노리」를 자유형 신시의 명작같이들 쓰고 있지만 정말 작품적으로 이 시들은 엄격하게 평가해 본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인가 첫 번의 것은 곧 명작이라는 미신이 들어 있다.”면서 “초기의 시나 소설들이 우리들의 창작물이나 전혀 남의 것을 모작한 것이나에 대하여 흑백을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둘째에 대하여 “20년대의 신문학측에서 보면 그 과제가 우리 역량에는 힘겨웠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주체역량이란 것이 확실하지 못한 약질의 문단이고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그 근대화를 수행하는 일이 본격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이며 모방적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분명치 못한 모호한 상태에서 이행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셋째에 대하여는 “그 빈곤사의 병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반문에 대한 해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령 정치적인 환경, 근대화의 모방성, 전통의 결여, 주체성의 약체 등 많이 나와 있지만 그밖에 더 실질적으로 병인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상의 빈곤성이라는 점⁴²⁾”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백철은 사조사 방법론이 다소 시용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제4판에서조차도 그 성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41) 위의 책, 244~245쪽.

42) 백철, 「한국문학사 서술방법상 문제점 -서술방법 및 지향점」, 133~136쪽.

있다. “이 사조사는 우리 신문학에 있어 처음 나온 문학사적인 저서이었으니만큼 신개척의 뜻도 있고 뒤에 오는 문학도들에 대한 기초작업, 또는 신문학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교시적인 텍스트 구실을 한 것”⁴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척의 의의’와는 달리 백철의 문학사를 관류하는 주된 인식 체계는 사조사적 인식이라기보다 타율적·불연속적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영향사라고 할 수 있다.

또 사조사를 서술하면서 사조의 개념과 범위도 애매모호하다. 사조의 개념을 ‘문단, 유행, 시대와 사회의 성격, 운동, 정신’ 등을 모두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조사적 인식 방법이라는 작위적 수단으로 문학사를 제단하고 있으며, 사조사라기보다 영향사에 가까우며 문학내적 인식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범주의 애매성은 자연주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를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과 혼동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백철은 그의 『조선신문예사조사』 제3장의 6항 「자연사상의 유행과 그 영향」에서 ‘자연귀환’ 혹은 ‘자연예찬’의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귀의의 정신을 근대 자연주의의 선행적인 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연’이라는 동일한 용어에서 받은 착가일 뿐이다. 동저의 동부분에서 인용 설명한 「무정」중의 일장면은 일종의 자연숭배의 정신이며, 남궁벽의 「오산편신」은 하나의 자연예찬이며, 김환의 미술론이나 작품은 원시적인 생활에 대한 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의 개념은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사상으로서 결코 근대 자연주의의 자연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 동양의 전통적인 개념은 자연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된 이념적 천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근대 자연주의의 개념은 오히려 신격적이며 우상적인 것을 거부 타파하는 현실적 지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⁴⁴⁾

43) 백철,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6), 1쪽.

44)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현대문학사, 1956), 382~384쪽.

이는 조연현이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인데, 백철의 사조사에서 볼 수 있는 개념 설정이 안이함과 그 난맥상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백철의 사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김현은 “그것은 사조라는 꼭두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품과 작가를 놓쳐 버리고, 그것들을 사조의 추종자”들로 만들었으며, “사조라는 단선적 측면만을 중시함으로써 문학을 막 자른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하정일도 “임화가 문재로 제기하고 그 내적 동력을 해명하고자 했던 문학사에서 의 일정한 경향의 교체를 통속화시켜, 우리 근대문학사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나 문학사의 내적 필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구 문예사조의 ‘수입사’로 전락”⁴⁶⁾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임화는 서술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그 자료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미완에 그쳤으며, 백철은 방법론적인 욕심으로 그 인식체계가 미완에 머물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IV. 결 론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를 중심으로 그가 한국 근대문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조사적 인식 방법’, ‘근대성 인식 방법’, ‘시대구분 방법’, ‘사조사적 인식 방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조사적 인식 방법’에서는 (1) ‘사조장면에 구분하여 그 무대조건 위에서 작가와 작품을 연출하는 문학사’라는 개념 (2)문학이 생성발달은 ‘대개는 작가나 작품이 고립해서 생겨나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

4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27쪽.

46) 김제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51쪽.

인 세력을 타고 群團과 流派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문단의 실체를 인정을 인정하는 내용 (3)사조사의 근간을 ‘관계법칙, 작가나 작품의 조류, 시대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식 (4)한 시대의 개개의 작품에서 공통되는 본질적인 특징을 분석 판단한다든가 과거의 작품들과의 질서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현대와의 연관성 아래서 체계화되는 것으로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 (5)사조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비교문학적 방법을 원용할 필요성을 제기 (6)비교문학적 방법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임화의 이식문학론과 같은 타율적·불연속적 인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7)한국 근대문학사를 시대적 영향사가 아닌 지역적 영향사로 인식하고 식민사관의 하나인 정체성, 사대성, 불모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음 (8)이 땅의 신문학사상 일제하 40년간은 암흑기의 시대로 단정하여 개항 이후 분단 기점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근대성 인식 방법’에서는 (1)‘근대성’에 대한 인식 체계가 무르다는 점과 그 기점 설정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점을 제시하지 않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 (2)근대성을 그 전 18세기중엽, 즉 영정조의 시대에 올라가서 찾아보는 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근대적 성격을 ‘루네이상스적인 기운, 「實事求是」의 풍이 왕성, 자기반성의 기운, 과학사상, 사학 지리학 등의 등장, 국민문학을 일으키는 기운, 신흥전진하는 시대적인 세력, 고전에 대한 정리 수집 편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3)갑오혁신 이후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무리 뒤떨러졌다해도 결국 근대적인 신문화운동은 이땅에도 등장할 시대가 온 것”으로 주장하고, 근대적 성격을 ‘쇄국의 문이 열리는데, 봉건주의에 대한 선전이 포고, 동학란 등의 민중반란, 민간의 혁신의 풍조, 시민계급이 지방할거, 봉건제 타파, 시민이란 신사회권의 경제적 유기관계, 민족주의의 생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 (4)신문학이 진실한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나타난 것은 1919년초라고 생각하고, 근대적 성격으로 ‘순수한 문학운동, 시와 소설의 분획’ 등 문단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 (5)1924년을 현대문학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6)오직 '근대사조'를 중심으로 강조 부연하여 다양성과 특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식 체계가 혼재해 있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시대구분 방법'에서는 (1)시대구분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사조의 흐름을 좇아 시대를 구분하고 명명하고 있으며 문학 내적인 독자적인 방법을 견지하고 있는 점 (2)시대 명명에 있어서도 문학 내적인 기준에 의해 명명하여 본질개념에 충실하며 문학사상(文學史像)을 얻어내고 있는 점 (3)시대 명명에 있어 지나치게 본질적 개념에 의존함으로써 말미암아 역사 서술의 통시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 (4)문학 내적인 기준에 의한 명명은 사회사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문학사의 배경인 사회사를 외면하는 매마른 이원론에 빠지고 있는 점 (5)일제강점기의 일원론적 인식에 대한 경계로 말미암은 경직성에 빠져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사조사적 인식 방법의 문제점'에서는 (1)사조사 방법론이 다소 시용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제4판에서조차도 그 성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2)사조사적 인식이라기보다 타율적·불연속적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영향사라고 할 수 있는 점 (3)사조의 개념을 '문단, 유행, 시대와 사회의 성격, 운동, 정신' 등을 모두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4)사조사적 인식 방법이라는 작위적 수단으로 문학사를 제단하고 있는 점 (5)사조라는 꼭두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품과 작가를 놓쳐 버리고, 그것들을 사조의 추종자로 만들고 서구 문예사조의 '수입사'로 전락시키고 있는 점 (6)방법론적인 욕심으로 그 인식체계가 미완에 머물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백철의 사조사적 인식 방법은 서구와의 영향사로 귀결되고 있으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무르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일제강점기의 일원론적 경계에 경직되어 있는 점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면서도 일관된 시대명명으로 文學史像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 문헌〉

-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상·하, 1947·1949.
____, 『개정 신문학사조사』, 1952.
____, 『증보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55.
백철·이병기, 『국문학전사』, 1957.
백철, 「국문학사 서술방법론」, 사상계44, 1957.3.
____,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972.
____, 「한국문학사 서술방법상 문제점-서술방법 및 지향점」, 서강 제4호(서강대학교), 1973. 12.
____, 「한국문학사 서술의 요강」, 예술원논문집 13집, 1974.
____, 「신서 한국문학사에의 모험」, 『한국문학』52호, 1978.2.
____, 「한국문학사 연구 - 한국문학사와 원류적인 것」, 아카데미논총, 1978.6.
____, 『제4판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제1부), 현대문학사, 195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